

각종 대회 우승...동계스포츠 불모지에 '스키 영재' 났다

차세대 국가대표 꿈 키우는 광주 송원중 최환희

"주니어 스키 데몬스트레이터에 선발되는 게 꿈입니다."

최환희(송원중 2)군이 동계스포츠 불모지 광주에서 차세대 국가대표 꿈을 키우고 있다. '스키 데몬스트레이터'는 대한스키지도자연맹과 한국스키장경영협회에서 매년 주최, 실시하는 데몬스트레이터 대회를 거쳐 선발된 대표 스키 지도자를 뜻한다.

그는 송원중 3학년 때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스키협회가 주관한 스키대회에서 고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초등부 전체 1위를 차지, 가능성과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후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최군은 지난 달 15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제 10회 '대한스키지도자연맹' 전국 주니어기술선수권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어 27일 평창 알펜시아스키장에서 열린 제1회 '블리자드 테크니카' 전국 주니어기술선수권대회에서 챔피언에 올랐다. 이 대회는 룽근, 종합활강, 슛턴 등 3개 종목에서 기술을 구현해 좋은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루 좋은 성적을 내어 챔피언이 될 수 있다.

그는 같은 달 열린 영호남배 스키대회, 광주시교육감배대회에서 전체 참가 선수(고등부, 대학부) 가운데 최고 기록을 내 주목받았다.

7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스키에 입문한 최군은 재능을 알아본 지도자(무주인더스키스쿨 운영

초등 3학년 때 고학년 제치고 1위 어렸을 때부터 가능성·재능 인정 지난달 주니어기술선수권 챔피언

"스키 타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해" 스키 데몬스트레이터 선발 목표

정 코치 등) 등의 권유로 본격적인 기술을 연마했다. 전년도 전국기술선수권 대회 챔피언이자 환희군의 스승인 김하영 데몬스트레이터와 국가대표 레전드 강민혁 알파인 감독도 '은인'이다.

최군은 "스키선수로 성장하는 데에는 아버지(최무성·광주시스키협회 부회장)의 영향이 컸다"며 "목욕히 뒷바라지를 해주며 응원해준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대회 입상은 물론, 스키를 접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군은 광주에 훈련할 곳이 없어 국내외를 오가고 있다. 겨울(12~3월)이면 매주 국내 스키장을 찾아 동계훈련을 한다. 비시즌에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알프스 산맥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최군은 "스키를 타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광주에서 차세대 국가대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광주 송원중 최환희군이 훈련하고 있다.



<이현승 사진작가 제공>

는 것,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는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올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며 "설원의 고요를 뚫고 달리면 가슴이 시원하게 뚫린다"고 설명했다.

최군의 주종목은 슛턴과 카빙턴이다. 그는 "스턴은 가장 어려운 종목이지만 각종 대회에서 최고점을 받을 만큼 자신감이 있고, 카빙턴은 속도를 즐기는 게 좋아서"라고 답했다.

지난달 전국 주니어기술선수권에서 챔피언에 오른 최군은 오는 5월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열리는 PISLAB 세계절 스키대회에서 제 기량만 발휘한다면 주니어 데몬스트레이터에 선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군이 유일하다.

최군의 아버지 최무성 부회장은 "환희의 실력이 뛰어난 만큼 진로 결정에 고민이 많다"며 "목표로 삼고있는 국가대표 데몬스트레이터에 선발되는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알파인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어 스키 전국동계체전 메달과 국가대표 상비군 이상도 기대할만 하다고 행복한 고민을 털어냈다.

최군은 "5월 대회에 맞춰 트레이닝과 슛턴, 패러렐 등 기초 및 응용트레이닝을 충실히 소화하고 있다"며 "내년 1, 2월 전국 주니어기술선수권과 전국레이싱대회, 그리고 동계체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데몬스트레이터가 돼 좋아하는 스키를 계속 타고 싶고, 오는 2029년 성인이 되는 해에는 세계인더스키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꼭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흥 출신 문형석·준석, 고향서 나란히 '형제 장사'

장흥장사씨름 금강·태백급 우승

장흥 출신 문형석(33)이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정남진 장흥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kg 이하) 우승을 차지하며 동생 문준석(31·이상수원특례시청)과 '형제 장사'에 등극했다.

문형석은 15일 장흥군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금강장사 결승전(5전 3승제)에서 같은 팀 동료인 김기수(26)를 3-1로 물리쳤다.

이날 개인 통산 4번째 금강장사에 오른 문형석은 전날 태백급(80kg 이하)에서 우승한 문준석의 친형이다.

2013년 추석 대회에서 나란히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던 이들 형제는 고향 장흥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약 9년 만에 동반 우승을 이뤘다. 이들은 장흥 관산을 출신이다.

문형석은 이날 황성희(울주군청)와 맞붙은 8강, 임태혁(수원특례시청)을 상대한 4강에서 모두 2-0으로 완승하며 결승에 올랐다.

첫판과 두 번째 판 들베지기, 빗장걸이를 연이어 성공시킨 문형석은 세 번째 판에서 김기수에게 한 점을 내줬으나, 이어진 네 번째 판 뒷무릎치기로 상대를 높이고 우승을 확정했다.

문형석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김기수 장사와 평소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다. 서로를 잘 파악하



정남진 장흥장사씨름대회 금강급과 태백급에서 우승한 문형석(왼쪽)·문준석 형제.



/연합뉴스

고 있지만, 고향에서 경기하다 보니 내 컨디션이 더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준석과 '형제 장사'에 오른 데 대해 "받은 응원을 보답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형제 장사에 다시 등극해서 너무

기쁘다"며 "현재 수원특례시청 팀 분위기가 매우 돈독하고 좋다. 앞으로도 이 분위기를 이어가 좋은 성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코비치, 3주만에 남자테니스 세계 1위 복귀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3주 만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1위 자리를 되찾는다.

현재 1위인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가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 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총상금 858만 4055 달러) 단식 3회전에서 가엘 몽피스(28위·프

랑스)에게 1-2(6-4 3-6 1-6)로 졌기 때문이다. 조코비치는 BNP 파리바오픈에 최근 2년 연속 불참했다.

메드베데프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16강까지 진출, 올해 대회에서 최소한 8강에 진출해야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3회전에서 탈락하며 1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조코비치는 2020년 2월부터 2년간 1위 자리를 지키다가 2월 말 1위를 메드베데프에게 내줬고, 이후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으나 메드베데프의 랭킹 포인트가 깎이면서 21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다시 1위에 복귀한다.

이날 메드베데프를 꺾은 몽피스는 테니스 선수인 아내 엘라나 스비틀리나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라파엘 나달(4위·스페인)은 대니얼 에번스(29위·영국)를 2-0(7-5 6-3)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타운스, 한 경기 60점...NBA 시즌 최다 득점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간판선수 칼 앤서니 타운스가 2021-2022시즌 미국프로농구(NBA)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다.

미네소타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AT&T 센터에서 열린 2021-2022 NBA 정규리그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원정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149-139로 이겼다.

이 경기에서 타운스는 60점을 넣고 리바운드 17개를 잡아내 팀 승리를 이끌었다. 한 경기 60점은 이번 시즌 NBA 전체에서 나온 최다 득점 기록이다.

종전에는 이달 초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와 1월 트레이 영(애들랜타)이 기록한 56점이었다.

또 타운스는 2000년 3월 사일 오닐(LA 레이커스)이 한 경기에 61점, 23리바운드를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한 경기 60점, 17리바운드 이상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이날 타운스의 60점은 미네소타 구단 사상 소속 선수의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이고, 팀 전체 149점도 미네소타 팀 자체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타운스 자신이 갖고 있던 56점이었고, 미네소타의 종전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은 144점이었다.

최근 9경기에서 8승 1패를 기록한 미네소타는 40승 30패를 기록, 서부 콘퍼런스 7위를 지켰다.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는 6위 덴버 너기츠(41승 28패)와는 1.5경기 차이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후보끼리 맞대결로 관심을 끈 덴버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에서는 덴버가 114-110으로 이겼다.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는 22점 13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버드는 34점 9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맞섰다.

또 하나의 '빅맨 매치업'이 펼쳐진 밀워키 벅스와 유타 제츠 경기에서는 밀워키가 117-111로 승



15일 열린 NBA 경기에서 미네소타의 간판선수 칼 앤서니 타운스가 상대 수비를 뚫고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했다. 밀워키의 아니스 아데토쿤보가 30점 15리바운드의 성적을 내 18점 14리바운드의 유타 휘디고 베르에게 판정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2관 더 배트맨
- 3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블랙라이트
- 4관 스펜서
- 5관 문풀
- 6관 문풀
- 9관 더 배트맨, 스펜서

7관 세네케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메리 미, 안테벨룸

8관 세네케를 파리스 주술회전 0, 언차티드, 유어 러브 송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